

達磨寺 法會誌



불기 2551년(서기 2007년)

모스크바 달마사

법회 순서

- ♣ 우리말 천수경 (독경) ----- 1
- ♣ 삼귀의 ----- 9
- ♣ 찬불가 ----- 9
- ♣ 예 불 ----- 10
- ♣ 반야심경 ----- 12
- ♣ 입 정 ----- 13
- ♣ 설 법 -----
- ♣ 일상 발원문 낭독 ----- 14
- ♣ 예불대참회문 ----- 17
- ♣ 공지사항 전파 -----
- ♣ 사홍서원 ----- 30
- ♣ 산 회 가 ----- 30
- ♣ 청 법 가 ----- 31
- ♣ 새 법우 환영가 ----- 32

우리 말 천수경

(모스크바 달마사)

정구업진언 (입으로 짓는 모든 죄업을 깨끗이 하는 진언)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하 (세 번)

오방내외안위제신진언 (주의의 모든 신을 편안하게 하는 진언)

나무 사만다 못다남 음 도로도로 지미 사바하 (세 번)

개경게 (경전을 여는 계송)

가장높고 미묘하고 깊고깊은 부처님법
백천만겁 지나도록 만나뵙기 어려워라
내가지금 다행히도 듣고보고 지니오니
부처님의 진실한뜻 어서빨리 알아지다

개법장진언 (법장을 여는 진언)

옴 아라남 아라다 (세 번)

천수천안 관자재보살 광대원만 무애대비심 대다라니 계청
관음보살 부처님께 머리숙여 절합니다
그원력이 위대하사 상호또한 거룩하고
고통속에 모든중생 일천팔로 거두시며
일천눈의 광명으로 온세상을 살피시네
참된말씀 그가운데 비밀한뜻 보이시고
하염없는 그맘속에 자비심이 넘칩니다
저희들의 온갖소원 어서빨리 이루옵고

모든죄업 남김없이 깨끗하게 씻어지다
하늘과용 모든성중 모두함께 보살피어
백천가지 온갖삼매 한꺼번에 깨쳐지다
받아지난 이내몸은 큰광명의 깃발이고
받아지난 이내마음 신비로운 곳집이니
세상티끌 씻어내고 고통바다 어서건너
보리법의 방편문을 아주얻게 하여지다
신비로운 대비주에 귀의하여 원하오니
마음속에 모든소원 원만성취 하사이다
자비하신 관세음께 지성귀의 하옵니다
이세상의 온갖진리 어서빨리 알아지다
자비하신 관세음께 지성귀의 하옵니다
부처님의 지혜의눈 어서빨리 얻어지다
자비하신 관세음께 지성귀의 하옵니다
한량없는 모든중생 어서빨리 건져지다
자비하신 관세음께 지성귀의 하옵니다
팔만사천 묘한방편 어서빨리 얻어지다
자비하신 관세음께 지성귀의 하옵니다
저언덕의 지혜의배 어서빨리 올라지다
자비하신 관세음께 지성귀의 하옵니다
생노병사 고통바다 어서빨리 건너지다
자비하신 관세음께 지성귀의 하옵니다
무명벗는 계과정을 어서빨리 얻어지다
자비하신 관세음께 지성귀의 하옵니다
극락세계 열반산에 어서빨리 올라지다
자비하신 관세음께 지성귀의 하옵니다

하염없는 법의진리 어서빨리 알아지다
자비하신 관세음께 지성귀의 하옵니다
절대진리 법성의몸 어서빨리 이뤄지다

칼산지옥 내가가면 칼산절로 무너지고
화탕지옥 내가가면 화탕절로 말라지고
모든지옥 내가가면 지옥절로 없어지고
아귀세계 내가가면 아귀절로 배부르고
수라세계 내가가면 악한마음 착해지고
짐승세계 내가가면 지혜절로 생겨지다

나무관세음보살마하살
나무대세지보살마하살
나무천수보살마하살
나무여의륜보살마하살
나무대륜보살마하살
나무관자재보살마하살
나무정취보살마하살
나무만월보살마하살
나무수월보살마하살
나무군다리보살마하살
나무십일면보살마하살
나무제대보살마하살
나무본사아미타불 (세 번)

신묘장구대다라니

나모라 다나 다라 야야 나막알약 바로기제 새바라야
모지사다바야 마하 사다바야 마하가로 니가야 음 살바
바예수 다라나 가라야 다사명 나막 가리다바 이맘 알
야 바로기제 새바라 다바 니라간타 나막 하리나야 파
발다 이사미 살발타 사다남 수반 아예 염 살바 보다남
바바말아 미수다감 다느냐타 음 아로계 아로가 마지로가
지가란제 혜혜하례 마하모지 사다바 사마라 사마라 하
리나야 구로구로 갈마 사다야 사다야 도로도로 미연제
마하 미연제 다라다라 다린 나례 새바라 자라자라 마
라 미마라 아마라 물제 예혜혜 로계 새바라 라야 미사
미 나사야 나베 사미사미 나사야 모하자라 미사미 나
사야 호로호로 마라호로 하례 바나마 나바 사라사라
시리시리 소로소로 못쟈못쟈 모다야 모다야 배다리야
니라간타 가마사 날사남 바라 하라나야 마낙 사바하
실다야 사바하 마하 실다야 사바하 실다유예 새바라야
사바하 니라간타야 사바하 바라하 목카싱하 목카야 사
바하 바나마 하따야 사바하 자가라 욕다야 사바하 상
카섭나네 모다나야 사바하 마하라 구타다라야 사바하
바마사간타 니사 시체다 가럿나 이나야 사바하 마가라
잘마 이바 사나야 사바하 『나모라 다나다라 야야 나
막알약 바로기제 새바라야 사바하』 (세 번)

사방찬 (온 사방을 찬탄하는 계송)

첫째동방 물뿌려서 청정도량 이루옵고
둘째남방 물뿌려서 끓는마음 시원하며

세째서방 물뿌려서 안락정토 이루옵고
네째북방 물뿌려서 영원토록 평안하네

도량찬 (법당을 깨끗이하는 계송)

온도량이 깨끗하여 더러운것 없사오니
삼보님과 천룡들은 이도량에 내리소서
내가 이제 묘한진언 받아지녀 외우노니
대자비를 베풀시어 저희들을 살피소서

참회계 (죄업을 참회하는 계송)

아득히면 옛날부터 내가지은 모든악업
시작이나 끝도없이 탐진치로 생기었고
몸파입파 뜻을따라 무명으로 지었기에
나는지금 모든업장 일심참회 하옵니다

참제업장 십이존불 (업장을 멸하여 주시는 열두분의 부처님)

나무참제업장보승장불

보광왕화령조불

일체향화자제력왕불

백억항하사결정불

진위덕불

금강건강소복괴산불

보광월전묘음존왕불

환희장마니보적불

무진향승왕불

사자월불

환희장엄주왕불
제보당마니승광불

십악참회 (열가지 악한 업장을 참회함)

산생명을 살생한죄 오늘모두 참회하고
남의물건 훔친죄업 오늘모두 참회하고
사음으로 지은죄업 오늘모두 참회하고
거짓말로 지은죄업 오늘모두 참회하고
기만하여 지은죄업 오늘모두 참회하고
이간질로 지은죄업 오늘모두 참회하고
악한말로 지은죄업 오늘모두 참회하고
탐욕으로 지은죄업 오늘모두 참회하고
성냄으로 지은죄업 오늘모두 참회하고
어리석어 지은죄업 모두참회 하옵니다

백겁천겁 쌓인죄업 한생각에 사라져서
마른풀로 불태우듯 혼적조차 없어지네
죄의자성 본래없고 마음따라 일어나니
마음한번 없어지면 죄업또한 사라지네
죄와업이 사라지고 마음또한 공해지면
바로그를 이름하여 진참회라 부른다네

참회진언 (죄를 참회하는 진언)

옴 살바못자 모지 사다야 사바하 (세 번)

준제주의 크신공덕 일념으로 늘외우면

그어떠한 어려움도 침노하지 못하오며
하늘이나 사람이나 부처님복 받으리니
이여의주 얻는이는 가장큰법 이룬다네

나무 칠구지불모 대준제보살 (세 번)

정법계진언 (법계를 깨끗이 하는 진언)
옴 남 (세 번)

호신진언 (몸을 보호하는 진언)
옴 치림 (세 번)

관세음보살 본심미묘 육자대명왕진언
옴 마니 반페 훔 (세 번)

준제진언
나무 사다남 삼막삼못다 구치남 다냐타
『옴 자례주례 준제 사바하 부림』 (세 번)

내가이제 대준제를 지성으로 외우옵고
크고넓은 보리심의 광대한원 세우노니
정과혜를 모두닦아 어서빨리 밝아지다
거룩하신 모든공덕 내가모두 이루옵고
높은복과 큰장엄을 내가두루 갖추어서
그지없는 중생들과 불도함께 이뤄지다

여래십대발원문 (부처님의 열가지 큰 발원)

나는 이제 삼악도를 여의옵기 원합니다
나는 이제 탐진치를 어서 끊기 원합니다
나는 이제 불법승을 항상듣기 원합니다
나는 이제 계과정을 힘껏닦기 원합니다
나는 이제 부처님법 늘 배우기 원합니다
나는 이제 보리심을 늘지니기 원합니다
나는 이제 안양계에 태어나기 원합니다
나는 이제 아미타불 만나뵙기 원합니다
나는 이제 나둔몸을 두루펴기 원합니다
나는 이제 모든중생 제도하기 원합니다

발사홍서원 (네가지 큰 원을 세움)

한량없는 모든중생 기어이다 견지리다
한량없는 모든번뇌 기어이다 끊으리다
한량없는 높은법문 기어이다 배우리다
한량없는 높은불도 기어이다 이루리다
내마음속 모든중생 기어이다 견지리다
내마음속 모든번뇌 기어이다 끊으리다
내마음속 높은법문 기어이다 배우리다
내마음속 높은불도 기어이다 이루리다

발원이 귀명례삼보 (삼보께 귀의하기 원함)

온세상에 항상계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온세상에 항상계신 법보님께 귀의합니다
온세상에 항상계신 승보님께 귀의합니다 (세 번). 천수경 끝.

삼귀의 (三歸依)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歸依佛 兩足尊)

거룩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歸依佛 離欲尊)

거룩한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歸依佛 衆中尊)

찬불가 (讚佛歌)

둥글고 또한 밝은 빛은 우주를 싸고

고르고 다시 넓은 덕은 만물을 길러

억만겁토록 변함없는 부처님 전에

한마음 함께 기울여서 찬양합니다.

저 모든 하늘 가운데서 가장 높고

이 넓은 세상 만류중에 제일 귀하사

지혜와 복덕 구족하신 부처님 전에

한마음 함께 기울여서 찬양합니다

예 불 (禮佛)

오분향례 (五分香禮)

계향 정향 혜향 해탈향 해탈지견향
(戒香 定香 慧香 解脫香 解脫知見香)

광명운대 주변법계 공양시방 무량불법승
(光明雲臺 周邊法界 供養十方 無量佛法僧)

헌향진언 (獻香眞言)

옴 바아라 도비야 훔 (세 번)

예불문 (禮佛文)

지심귀명례 (至心歸命禮)

삼계도사 사생자부 시아본사석가모니불
(三界導師 四生慈父 是我本師釋迦牟尼佛)

지심귀명례 (至心歸命禮)

시방삼세 제망찰해 상주일체 불타야중
(十方三世 帝網刹海 常住一切 佛陀耶衆)

지심귀명례 (至心歸命禮)

시방삼세 제망찰해 상주일체 달마야중
(十方三世 帝網刹海 常住一切 達磨耶衆)

지심귀명례 (至心歸命禮)

대지문수사리보살 대행보현보살 대비관세음보살
대원 본존지장보살 마하살

(大智文殊師利菩薩 大行普賢菩薩 大悲觀世音菩薩
大願 本尊地藏菩薩 摩阿薩)

지심귀명례 (至心歸命禮)

영산당시 수불부촉 십대제자십육성 오백성독수성
내지 천이백제대아라한 무량자비성중

(靈山當時 受佛付囑 十大弟子十六聖 五百聖獨修聖
乃至 千二百諸大阿羅漢 無量慈悲聖衆)

지심귀명례 (至心歸命禮)

서건동진급아해동 역대전등제대조사 천하종사일체
미진수 제대 선지식

(西乾東震及我海東 歷代傳燈諸大祖師 天下宗師一切
微塵數 諸大 善知識)

지심귀명례 (至心歸命禮)

시방삼세 제망찰해 상주일체 승가야중

(十方三世 帝網刹海 常住一切 僧家耶衆)

유원무진삼보 대자대비 수아정례 명훈가피력
원공법계제중생 자타일시 성불도

(唯願無盡三寶 大慈大悲 受我頂禮 冥熏加被力
願共法界諸衆生 自他一時 成佛道)

마하반야바라밀다심경

(摩訶般若波羅蜜多心經)

관자재보살 행심반야바라밀다 시조견 오온개공 도일체
고액 사리자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시공 공즉시색
수상행식 역부여시 사리자 시제법공상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증불감 시고 공증무색 무수상행
식 무안이비설신의 무색성향미촉법 무안계 내지 무의
식계 무무명 역무무명진 내지 무노사 역무노사진 무고
집멸도 무지역무득 이무소득고 보리살타 의반야바라밀
다 고심무가 애무가 애고 무유공포 원리전도 몽상 구
경열반 삼세제불 의반야바라밀다 고득아녹다라삼막삼
보리 고지 반야바라밀다

시대신주 시대명주 시무상주 시무등등주 능 제일체고
진실불허 고설 반야바라밀다 주 즉설주왈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승아제 모지 사바하』 (세 번)

觀自在菩薩 行深般若波羅蜜多 時照見 五蘊皆空 度一切
苦厄 舍利子 色不異空 空不異色 色卽是空 空卽是色
受想行識 亦復如是 舍利子 是諸法空相
不生不滅 不垢不淨 不增不減 是故 空中無色 無受想行識
無眼耳鼻舌身意 無色聲香味觸法 無眼界 乃至 無意識界
無無明 亦無無明盡 乃至 無老死 亦無老死盡 無苦集滅道
無智亦無得 以無所得故 菩提薩埵 依般若波羅蜜多 故心
無罣碍無罣碍故 無有恐怖 遠離顛倒 夢想 究竟涅槃
三世諸佛 依般若波羅密多 故得阿耨多羅三藐三菩提 故知
般若波羅蜜多

是大神呪 是大明呪 是無上呪 是無等等呪 能 除一切苦
真實不虛 故說 般若波羅蜜多 呪 卽說呪曰

『揭諦 揭諦 波羅 揭諦 波羅揭諦諦 菩提 婆婆訶 』 (세 번)

입 정 (入定)

입정은 곧 좌선(坐禪)을 말합니다. 좌선법에 들어가 몸가짐을 바로 하고 호흡을 조절하며, 마음을 가다듬어 고요한 경계(境界)에 머물게 합니다.

몸가짐

방석위에 정좌하여 등뼈를 똑 바르게 하고, 허리를 쭉 펴며, 가부좌(跏趺坐) 또는 반가부좌(半跏趺坐)로 앉습니다. 손을 펴서 왼손등을 오른편 손바닥 위에 올려 놓아 엄지 손가락을 가볍게 서로 맞대어 타원형이 되게 한 다음 배꼽 밑 단전(丹田) 부분에 댕니다. 눈은 지긋이 반쯤 뜨고 코 끝을 내려다 봅니다.

호흡조절

입은 꼭 다물고 이도 지긋이 문 다음, 혀 끝을 입천장에 댕니다. 천천히 코로 숨을 쉬는데, 들여 마신 숨이 단전에 이르도록 깊이 하되 고요하고 미세하게 반복합니다.

마음가짐

마음을 고요히 한 곳에 모아 전념해 나갑니다. 이때 마음을 모으기 위하여 ‘무(無견)’ ‘이것이 무엇인가’ 등 일정한 화두를 듭니다.

일상 발원문

우주에 충만하사 아니 계신 곳 없으시고, 영겁에 항상하사
아니 계신 때 없으시는 불보살님께 귀의하옵니다.

부처님이시어 이제 마음 거두어 함장하오니 자비의 문을
열고 지혜의 단비를 뿌려 목마른 저희들 가슴에 보리의
푸른 쑥을 듣게하소서.

항상 욕심 많고 성 잘내고 어리석어, 고통의 굴레를
벗지 못하는 저희들은 부처님의 찬란한 해탈세계로 나아
가기 원하옵니다.

바라옵건데,

저희가 어둠 속에서 방황할 때 당신의 빛을 만나게하시고,
시련으로 고통을 당할 때 당신의 손을 잡게 하시며,
불화로 반목할 때 당신의 미소를 보게 하시고,
나태와 좌절에 빠져 힘들어 할 때 당신의 고행을 배우게
하시며.

우리의 소망이 거룩하고 올바른 뜻으로 뭉치어 날마다
향상될 때, 우리의 앞길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부처님의 인연 공덕으로 얻은 건강한 마음과
몸을 간직하여 자비로서 세상을 구하는 등불이 되고자
하옵니다.

복덕과 지혜를 다 구족 하신 부처님
우리의 발원을 온 중생계에 회향하오니 이 공덕으로
온 중생계가 평화롭고 부처님의 지혜로 모두 다 함께
성불 하여지기를 발원하옵니다.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시아본사 석가모니불

한국 사찰 건립 추진 발원문

거룩하신 부처님!

저희들은 오늘 아득히 먼 옛날부터 탐, 진, 치, 삼독으로 지어온 크고 작은 많은 허물을 간절한 마음으로 불, 법, 승 삼보전에 일심 참회 하옵니다.

한 생각 비우고 맑히오니 날로 정신과 육체가 건강하며 부처님을 따라 배우는 수행력이 향상되어 온 세상에 등불이 되게 하옵소서.

시방 삼세, 만물의 스승이신 부처님!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저희들은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불자들이 모이는 모스크바에 ‘대한민국 전통 사찰 건립을 위한 큰 뜻을 합치고 부처님 전에 발원’ 하오니 감응하소서

- ◎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불자들은 모스크바에 한국 전통 사찰을 건립하여 우리 정신문화의 중심지로 삼겠습니다.
- ◎ 우리가 뜻을 모아 건립하는 한국 사찰은 한국민과 고려인 러시아인들을 포함한 모든 불자들의 신행생활을 돋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전하는 화합의 공간으로 삼겠습니다.
- ◎ 한국 사찰 건립은 모스크바 달마사 불자들의 노력과 정성으로 10년 이내에 건립하겠습니다.
- ◎ 우리는 사찰이 완공되어 부처님을 원만히 모실 때까지 ‘한국 사찰 건립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화합하며, 많은 불자들이 참여하여 부처님 전에 복 짓기를 권공하겠습니다.
- ◎ 우리의 발원이 이루어 질 때 우리는 공덕을 내세우지 않고 부처님과 모든 중생에게 회향하겠습니다.

대자대비하신 부처님!

대한민국의 평화통일이 하루 빨리 이루어지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드는 한 나라 한 민족이 온 중생계의 스승이 되게 하소서

그리고 이 시대 대한민국에 태어난 우리 불자들이 부처님의 가피로 늘 바른 뜻을 세우고 건강하며 일체 중생을 위한 보살도를 펼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부처님 전에 발원하옵니다.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시아본사 석가모니불

불기 2547년, 부처님 출가절
모스크바 한국 사찰 건립을 발원하는 불자 일동

예불대참회문 (禮佛大懺悔文)

대자대비민중생 대희대사제함식
상호광명이자엄 중등지심귀명례 (拜)

지심귀명례 금강상사 (拜)
귀의불 귀의법 귀의승 (拜)

아금발심 불위자구인천복보 성문연각
내지권승
제위보살 유의최상승 발보리심 원여법계
중생 일시동득 아녹다라삼약삼보리 (拜)

지심귀명례 시방 진허공계 일체제불 (拜)
지심귀명례 시방 진허공계 일체존법 (拜)
지심귀명례 시방 진허공계 일체현성승 (拜)

지심귀명례 여래 응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해 무상사조어장부
천인사 불 세존 (拜)

지심귀명례 보광불 (拜)

지심귀명례 보명불 (拜)

지심귀명례 보정불 (拜)

지심귀명례 다마라발전단향불 (拜)

지심귀명례 전단광불 (拜)

지심귀명례 마니당불 (拜)

지심귀명례 환희장마니보적불 (拜)

지심귀명례 일체세간락견상대정진불 (拜)

지심귀명례 마니당등광불 (拜)

지심귀명례 혜거조불 (拜)

지심귀명례 해덕광명불 (拜)

지심귀명례 금강뢰강보산금광불 (拜)

지심귀명례 대강정진용맹불 (拜)

지심귀명례 대비광불 (拜)

지심귀명례 자력왕불 (拜)

지심귀명례 자장불 (拜)

지심귀명례 전단굴장엄승불 (拜)

지심귀명례 현선수불 (拜)

지심귀명례 선의불 (拜)

지심귀명례 광장엄왕불 (拜)

지심귀명례 금화광불 (拜)

지심귀명례 보개조공자재력왕불 (拜)

지심귀명례 허공보화광불 (拜)

지심귀명례 유리장엄왕불 (拜)

지심귀명례 보현색신광불 (拜)

지심귀명례 부동지광불 (拜)

지심귀명례 항복중마왕불 (拜)

지심귀명례 재광명불 (拜)

지심귀명례 지혜승불 (拜)

지심귀명례 미륵선광불 (拜)

지심귀명례 선적월음묘존지왕불 (拜)

지심귀명례 세정광불 (拜)

지심귀명례 용종상존왕불 (拜)

지심귀명례 일월광불 (拜)

지심귀명례 일월주광불 (拜)

지심귀명례 혜당승왕불 (拜)

지심귀명례 사자후자재력왕불 (拜)

지심귀명례 묘음승불 (拜)

지심귀명례 상광당불 (拜)

지심귀명례 관세등불 (拜)

지심귀명례 혜위등왕불 (拜)

지심귀명례 법승왕불 (拜)

지심귀명례 수미광불 (拜)

지심귀명례 수만나화광불 (拜)

지심귀명례 우담발라화수승왕불 (拜)

지심귀명례 대혜력왕불 (拜)

지심귀명례 아촉비환희광불 (拜)

지심귀명례 무량음성왕불 (拜)

지심귀명례 재광불 (拜)

지심귀명례 금해광불 (拜)

지심귀명례 산해혜자재통왕불 (拜)

지심귀명례 대통광불 (拜)

지심귀명례 일체법상만왕불 (拜)

지심귀명례 석가모니불 (拜)

지심귀명례 금강불괴불 (拜)

지심귀명례 보광불 (拜)

지심귀명례 용존왕불 (拜)

지심귀명례 정진군불 (拜)

지심귀명례 정진희불 (拜)

지심귀명례 보화불 (拜)

지심귀명례 보월광불 (拜)

지심귀명례 현무우불 (拜)

지심귀명례 보월불 (拜)

지심귀명례 무구불 (拜)

지심귀명례 이구불 (拜)

지심귀명례 용시불 (拜)

지심귀명례 청정불 (拜)

지심귀명례 청정시불 (拜)

지심귀명례 사류나불 (拜)

지심귀명례 수천불 (拜)

지심귀명례 견덕불 (拜)

지심귀명례 전단공덕불 (拜)

지심귀명례 무량국광불 (拜)

지심귀명례 광덕불 (拜)

지심귀명례 무우덕불 (拜)

지심귀명례 나라연불 (拜)

지심귀명례 공덕화불 (拜)

지심귀명례 연화광유희신통불 (拜)

지심귀명례 재공덕불 (拜)

지심귀명례 덕념불 (拜)

지심귀명례 선명칭공덕불 (拜)

지심귀명례 흥염재당왕불 (拜)

지심귀명례 선유보공덕불 (拜)

지심귀명례 투전승불 (拜)

지심귀명례 선유보불 (拜)

지심귀명례 주잡장엄공덕불 (拜)

지심귀명례 보화유보불 (拜)

지심귀명례 보련화선주사라수왕불 (拜)

지심귀명례 법계장신아미타불 (拜)

여시등 일체세계 제불세존 상주재세
시제세존 당자념아 약아차생 약아전생
종무시생사이래 소작중죄 약자작 약교타
작 견작수희 약탑약승 약사방승물 약자
취 약교타취 견취수희 오무간죄 약자작
약교타작 견작수희 십불선도 약자작 약
교타작 견작수희 소작죄장 흑유부장 흑
불부장 응타지옥 아귀축생 제여악취 변
지하천 급멸려차 여시등처 소작죄장 금
개참회 (拜)

금제불세존 당증지아 당억념아 아부어
제불세존전 작여시언 약아차생 약아여생
증행보시 흑수정계 내지시여축생 일단지
식 흑수정행 소유선근 성취중생 소유선근
수행보리 소유선근 급무상지 소유선근
일체합집 교계주량 개실회향 아녹다라
삼막삼보리 여과거미래 현재제불 소작
회향 아역여시회향 증죄개참회 제복진수
희 급청불공덕 원성무상지 거래현재불 어
중생최승 무량공덕해 아금귀명례 (拜)

소유시방세계중 삼세일체인사자
아이청정신어의 일체변례진무여
보현행원위신력 보현일체여래전
일신부현찰진신 일일변례찰진불 (拜)

어일진중진수불 각처보살중회중
무진법계진역연 심신제불개충만

각이일체음성해 보출무진묘언사
진어미래일체겁 찬불심심공덕해 (拜)

이제최승묘화만 기악도향급산개
여시최승장엄구 아이공양제여래
최승의복최승향 말향소향여등촉
일일개여묘고취 아실공양제여래
아이광대승해심 심신일체삼세불
실이보현행원력 보변공양제여래 (拜)

아석소조제악업 개유무시탐진치
종신어의지소생 일체아금개참회 (拜)

시방일체제중생 이승유학급무학
일체여래여보살 소유공덕개수희 (拜)

시방소유세간등 최초성취보리자
아금일체개권청 전어무상묘법륜 (拜)

제불약육시열반 아실지성이권청
유원구주찰진겁 이락일체제증생 (拜)

소유예찬공양불 청불주세전법륜
수희참회제선근 회향증생급불도 (拜)

원장이차승공덕 회향무상진법계
성상불법급승가 이제용통삼매인
여시무량공덕해 아금개실진회향
소유증생신구의 견혹탄방아법등
여시일체제업장 실개소멸진무여
염념지주어법계 광도증생개불퇴
내지허공세계진 증생급업번뇌진
여시사법광무변 원금회향역여시 (拜)

『나무대행 보현보살』 (세 번)

예불대참회문 끝.

생일 발원문(I)

일체 중생의 성스러운 귀의처이신 부처님!
우러러 생각하오니 밝은 빛이 온 누리를 두루 비추사
저희들로 하여금 크신
가호 속에 복된 삶을 누리게 하고 있사옵니다.
오늘 ○○○ 불자의 생일을 맞이하여
삼보께 공양하옵고 지극한 정성으로 발원하옵니다.
자비하신 부처님!
오늘 ○○○ 불자의 보람된 삶을 살아가려는
갸륵한 성심을 굽어 살피시어
그의 앞길에 나타나는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슬기와 용기, 그리고 보살의 길을 걷도록
덕성과 복록을 증지시켜 주시옵소서.
하늘 위, 하늘 아래에 가장 높으신 부처님!
영겁으로 이어져 내려온
마음의 연령은 헤아릴 수 없지만
오늘 ○○○ 불자는
이 생의 나이 한 살을 더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삼보를 믿는 마음 더욱 두터워져서
지혜는 자라며 수명은 늘어나서
항상 부처님의 대자대비하신 은혜로
정법의 등불을 밝게 켜는
전등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말법이오나 ○○○ 불자는

만나기 어려운 불법을 만나 삼보를 믿고 받드오니
모두 부처님의 원력일 따름입니다.

○○○ 불자의 생일을 맞아
가족들의 마음속에 원하는 일들도 다 이루어지고
집안 식구의 몸은 건강하고 마음은 올바르며
보람되고 기쁜 일이 더욱 많아지기를 시방 삼세의
모든 부처님과 여러 보살님께 간절히 기원하옵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루 시아본사 석가모니불

사홍서원 (四弘誓願)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衆生無邊誓願度)

번뇌를 다 끊으오리다 (煩惱無盡誓願斷)

법문을 다 배우오리다 (法門無量誓願學)

불도를 다 이루오리다 (佛道無上誓願成)

산회가 (散會歌)

몸은 비록 이 자리에서 헤어지지만

마음은 언제라도 떠나지 마세

거룩하신 부처님을 항상 모시고

오늘 배운 높은 법문 깊이 새겨서

다음날 반가웁게 한 마음 한 뜻으로

부처님의 성전에 다시 만나세.

청법가 (清法歌)

덕 높으신 스승님 사자좌에 오르사
사자 후를 합소서 감로 법을 주소서
옛 인연을 이어서 새 인연을 맺도록
대 자비를 베푸사 법을 설하옵소서

법 높으신 스승님 큰 법좌에 오르사
진리의 빛 주소서 삶의 힘을 주소서
묵은 업장 멸하고 참진아를 찾도록
대 자비를 베푸사 법을 설하옵소서

새 법우 환영가

부처님의 은덕으로 참 나를 찾으니
오늘부터 온 우주에 주인이 되었네
어진 맘과 참된 힘을 다 받쳐줄 법우들
한 겨레의 짙은 피로 보련화 피우세

사바연에 시달린몸 다 벗어 던지고
내님따라 깊은 곳에 알몸으로 와서
그립던 님 품에 안겨 한 마음 얻으니
세세생생 인연되어 잠들게 하소서

먼길이나 험한길도 다 같이 도우며
우리들은 형제자매 손잡고 갑시다
서로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 하면은
사바세계 이 대로가 극락이라네

한국 사찰 건립 추진 발원

불기 2547년 부처님 출가절

모스크바 불교 신자 일동

모스크바 한국 사찰 건립을 위한 발원

▶ 발원 취지

- 모스크바에 한국 전통 사찰을 건립하여 한국 정신문화의 중심지로 삼는다.
- 한국 사찰은 모스크바 거주 한국인, 고려인, 러시아인 등 불자들의 신행생활과 다목적 공간으로 삼는다.
- 사찰 건립을 위한 자본금 마련은 모스크바 달마사 불자들의 노력과 정성을 바탕으로 출발한다.
- 사찰은 10년 이내에 건립하기로 하며, 본국에서 뜻있는 불자의 참여를 장려한다.
- 사찰 건립의 기초는 현 모스크바 ‘달마사’이며 모스크바 건립 사찰은 ‘달마사’로 한다.
- 현 모스크바 ‘달마사’는 신축 사찰 완공시까지 존재하며, 차후 활용에 대한 문제는 원명스님의 뜻을 받든다.
- 신축 ‘달마사’에는 한국 스님의 주석과 신행지도가 이루어 지기를 발원한다.

▶ 발원 및 모금 운동

- 한국 사찰 건립을 위한 최초 발원은 불기 2547년 음력 2월 8일 (서기 2003. 3. 8) 부처님 출가절로 하며 모스크바 불자들의 천배 기도로 시작한다.
- 한국 사찰 건립 추진 위원회를 조직하고 변함없는 발원과 기도로 성취한다.
- 달마사 신자들은 매 법회시마다 1인당 1달러 보시하기 운동을 펼친다.
- 달마사 신자들은 모스크바 거주 한국인과 외국인에게 적극 포교하여 신자를 확대하고 모스크바 방문 관광객에게 동참 발원의 기회를 갖도록 홍보한다.

- 달마사 신자에 대한 유대관계를 높이고, 애경사에 적극 참여하여 신자간 상부상조하는 풍토를 만들어 보다 보람있는 생활을 영위한다.
- 매월 가족 회비 (2003. 1월 현재 월 50달러)는 법회공양 활동에 우선 집행하고, 연간 결산하여 잔액은 건립기금에 보시여부를 결정한다.

▶ 한국사찰 건립 추진 위원회 구성

- 건립 추진 위원회의 위원은 자발적 참여와 추천으로 결정하되 모스크바 장기 거주자 중심으로 구성한다.
- 건립 추진 위원회의 위원은 매년 1회 재 추천하며 위원장을 제외하고는 전원 윤번제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 건립 추진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필요시 조정한다.
 - 위원장 (1): 지 호천
 - 위원회 : 노 흥덕, 김 천덕, 박 형인.

▶ 한국사찰 건립 추진 위원회 활동

- 신자간의 상부상조와 협력은 건립추진위원회의 적극적 활동으로 활성화 시킨다.
- 건립 추진 위원장은 매월 1회 보시금 현황 및 추진위 활동 사항/ 계획에 대하여 신자들에게 보고한다.
- 보시금은 법당 건립비용의 기초로서 건립 추진 위원회 공동으로 금융기관에 저축하여 보관한다.
- 건립 추진 위원회는 현재 달마사의 운영과 활성화 임무를 겸한다.
- 건립 추진 위원회의 활동 임기는 법당 건립시까지이며 출범과 동시에 임무를 수행한다.
- 건립 추진 위원회는 역대 활동 임기간 위원 명단과 신자명단을 매년 갱신하여 법당 완공시 까지 보존한다.

불기 2547년 (서기 2003년) 음력 2월 8일, 부처님 출가절